

취 임 사

김 홍 상 제15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추진 계획 하에, 농정 조직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 역시 변화와 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마찰과 환율전쟁, 한·일 관계 악화,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 등 우리 농업·농촌은 엄중한 시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국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도 엄습하고 있고,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5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어젠다를 탐색하여 우리 연구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막중한 사명감도 느낍니다.

연구원은 지난 41년 동안 선배님들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반에서 의제 발굴, 정책 개발, 인력 육성 등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공기(公器)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금 미래지향적·중장기적인 정책 선도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문가다운 통찰력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분야의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임에도 정부·농산업계·농업인·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공통의 인식 기반을 만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고민의

들을 더 확장해, 도시와 비농업계를 포함한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정부 위탁사업 수행 비중의 지속적 증가, 경험 많은 연구 인력 유출에 따른 시니어-주니어 연구자 인력구성의 불균형, 나주 이전 이후 조직문화의 변화 등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영·사업·인력 구조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경직되고 치밀하지 못한 대응으로 연구역량이 정체되고 조직원의 불만이 증대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경영진과 구성원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이 충실한 연구, 보다 높은 시선으로 사유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원훈이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넓은 시야, 깊은 연구, 높은 긍지”를 바탕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소통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연구원 재생의 역사를 함께 쓰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의 방향성을 ‘미래를 그려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원’, ‘필요한 연구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연구원’,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농촌의 사회적 어젠다와 농정과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친밀한 소통과 협력적 고민으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연구와 연구원 여러분이 원하는 연구를 적절히 결합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열린 원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논의합니다. 연구 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연구기획 기능도 강화하

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기획 역량을 높이고 연구 중심의 인력 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연구원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경영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소명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연구 환경을 개선해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라 유연한 연구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 집단지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연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혁신을 통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연구원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성과의 확장과 역량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시니어 연구자와 후배 연구자가 함께 기획·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 연구 역량 전수, 네트워크 공유, 현장성 보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과 확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연구보고서 이외에 더 신속하게 읽기 쉬운 현안분석 자료를 발행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기존 온라인 홍보 채널(홈페이지, SNS)을 비롯한 현지통신원 및 KREI리포터 등의 소통 구조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이 정부의 농정방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농정 분야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제는 연구원이 농업·농촌·식품 관련 국책연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 부처, 민간연구기관 등과의 느슨했던 연계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부처와의 실질적 연계를 더욱 강

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연구기관·학계와 서로 협력하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구 과제를 발굴·수행하는 농정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농업계의 다양한 주체, 민간연구기관 및 학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방적인 논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연구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확산하는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감과 소통의 실천적 리더십을 실행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연구원 고유 활동에 주력하면서 구성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솔선하는 리더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경영은 물론 연구과제 발굴, 농정현안 공유 등 다양한 부문에서 토론을 활성화해 소통·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직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보직자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사회적 의제 선도를 주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직 수행이 큰 책임이며 동시에 연구원과 동료에게 헌신하는 기회가 되도록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지역 소재 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과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혁신도시 소재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인근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기숙사, 강의실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단기 교육만이 아닌 중장기 교육 체계까지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을 적절히 결합해 연구자들이 필요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이 관련 기관과 대학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간의 무한 경쟁을 완화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직원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핵심 업무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소신껏 일하며, 본인의 일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지시자보다는 때로는 촉진자가 되고, 때로는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직원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고 조직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열린 연구원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원이 좋은 근무여건을 지닌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연구원 구성원으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집시다. 외부의 비판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농촌·식품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를 믿고 굳건히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